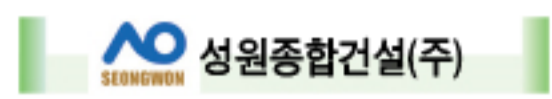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포창

기술력 바탕 가치창조 고객중심 경영 총력 건설현장 종합 첨단시스템 구축... 건축물 체계적 품질관리 만전



성원종합건설(주)(대표이사 유동욱)이 2017 대한민국 건설환경 기술상 시상식에서 국가건축정책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성원종합건설은 '신용이 경쟁력이다'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설립 이래 19년간 종합건설업체로 토건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한 기업이다.

성원종합건설은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우수인력

대화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친환경적인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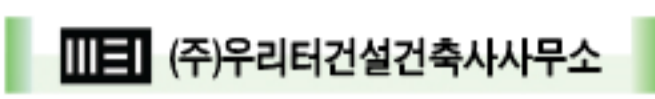
또한, 에너지 빅데이터 연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빌딩(복층형) 오피스텔 건축물 내부의 편리성을 강조한 동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수요자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각 현장마다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문을 받는 등 소비자를 위한 품질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유동욱 대표이사

만원), 리치온빌 공동주택 신축공사(13억 2천만원), 화곡동 지하스퀘어 오피스텔 신축공사(33억

설계 공사능력 모두 갖춘 강소기업 '우뚝' 직원 협력사 한 뜻... 창조적 업무수행 앞장



'신뢰가 최선이다'를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는 (주)우리터건설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채동석)가 2017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시상식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터건설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시공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년간의 설계·시공 경험을 토대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들이 총 망라된 형태의 '시립'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터건설건축사사무소 채동석 대표이사는 건축사다. 채동석 건축사가 지향하는 건축은 최고의 건물이 아닌 최선의 건물이다. 더 나아가 신뢰가 최선이라고 믿고 건축설계 및 건축시공을 함께 하면서 사업을 수행한다.

채동석 대표는 "건축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어울린다면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그러한 가능성이 달성될 때 건축은 단지 부동산 일



채동석 대표이사

며 문산의 랜드마크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입면 강조형의 외곽 디자인과 최대 3층 높이의 필로티 설계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 등 기술개발 지원 앞장 에너지 연구 인재양성사업 강화 등 고객만족 전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2015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사업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를 위해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성원종합건설은 또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의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가치창조와 고객중심 경영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현장경험과 현장실적 연구 활동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원종합건설은 토건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의 시공부분 설계와 시공현장과의 직접적인

성원종합건설은 친환경적인 에너지개발 기술을 시대에 맞는 전략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연구 인재양성사업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차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의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합동연구를 통한 인력양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성원종합건설은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EDCF와 국제라이온스클럽 봉사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팽택 가재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13억 2100

9900만원), 복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22억원), 대유 아르페 오피스텔 신축공사(32억 9천만원) 등이 있다.

유동욱 대표이사는 "성원종합건설(주)는 종합적이고 첨단화된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으로, 건축을 위한 시행계획과 공정,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성원종합건설 임직원 일동은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다수의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만족하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가 최선이다' 기업이념 실천 고객감동 실현 디자인 바탕 시공 자회사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원활한 현장지원은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 완가관리를 통한 경제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시공이 '고객에게 드리는 최대만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항상 신뢰받는 기업,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우리터건설건축사사무소는 이에 부합하기 위해 별도의 시공회사인 (주)우리터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과 협력업체까지 하나 되어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마태가치가 가득한 기업이다.

우리터건설건축사사무소의 건축은 공학적 계획으로 완성되지만, 그 소속은 인문학의 영역이다. 건축의 존재 기반이 역사·철학·예술·사회·문화

뿐'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돈의문에 적산가옥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며 복원·복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복구조 주택을 현대식 재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일부 자재를 대장간에 주문 제작했으며, 전통문양의 문살과 천정등의 복구조 디자인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면서 완성해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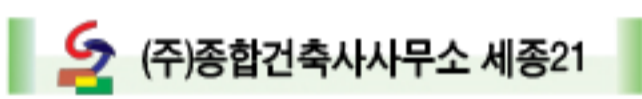
계성공단의 설계 실적도 보유한 우리터건설건축사사무소는 개성에서 가까운 경기도 파주 문산을 부근에 34층 규모(100)여 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설계했다. 이 단지는 역사관에 위치하며, 참신한 디자인이 주목받으

도임,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주)우리터건설건축사사무소는 직지만 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건축설계는 물론 공사, 인테리어, 현장관리, 완가관리까지 두루 가지며 경험한 채동석 대표의 역량이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회사 규모는 작지만 완벽한 시행구조를 가질 수 있고 리스크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소규모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시공까지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은 거의 없는데도 우리터건설건축사사무소는 설계와 공사 능력을 병행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우수한 다변로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전 임직원이 매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 시공 선보인다 미적 감각 뛰어난 완벽한 건축설계 지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세종21(대표이사 김성수)이 제12회 2017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에서 국가건축정책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기술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로 하자 없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건축을 지향하며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종21은 인간과 관련된 환경은 디자인의 결정적 인자로 생각

한다는 칭찬을 받을 때도 그렇다"고 말했다.

세종21은 건축, 인간과 사회에 활력과 영감을 주는 건축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고의 혁신적 자원과 경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주, 협력업체, 전문 자문단, 전 스테이크들이 하나가 되는 디자인 집단을 운영함으로써 건축과 인간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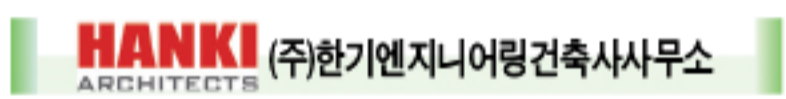
김성수 대표이사는 "세종21은 단순한 설계자가 아닌 말주자가 만족



김성수 대표이사

계대로 제대로 시공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적해 가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예술 기술 융합시대 미래건축 선도한다 고객신뢰 바탕 디자인 차별 지속가능성 추구



(주)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송유석)가 2017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건축가, 엔지니어,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한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1990년 창립 이후 다수의 공공시설 및 다양한 영역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디자인의 차별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화롭게 창출하고, 건축주에게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

축물 내실 환경구조, 건물의 금속 외장판넬의 보수 코팅방법, 고무무브를 이용한 건축공사를 토류관 구조, 공동주택의 가스관에 설치되는 방화커버, 공동주택단지내의 보도 배수구조 등의 특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기능, 환경을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융합해 독창적이고 건강한 공간환경을 창조하는 건축문화와 주도하고 있다. 주요 조직으로는 설계부와 구조부, 건설사업관리부, CG부, 부설연구소, 업



송유석 대표이사

술개발에 3억 8백만원을 투자했다. 이어 2015년에는 투자비를 늘려 3억 3,500만원을, 2016년에는 3억 5,900만

자연 건축 영역 사이서 시너지 효과 창출 앞장 고객만족 작품 설계... 최상의 건축물 창조 견인

하는 디자인 철학과 과정을 통해 장소와 공공의 열망, 자연과 건축의 영역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올해 건축설계를 시작한 지 20년이 된 김성수 대표이사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설계사무소, 쌍용건설 등을 거쳐 (주)세종21을 설립했다.

김성수 대표이사는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발휘해 한 점의 하자도 없는 구조, 기능, 미적인 건물을 설계 시공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특히 건축주들로부터 고

하는 작품을 남기는 건축 설계회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청신동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 및 감리, 천안시 운전리 1,690세대 아파트 설계, 흥농동 다가구주택 신축 설계 및 감리, 전농동 주택 신축 설계, 감리 및 시공, 동선동 동선오피스텔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방학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설계, 감리 및 시공 등이 있다.

특히 이 회사는 단순히 건축 설계로 끝난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 매일 찾아 감리자가 아닌데도 설

가능한 자신의 설계 작품이 잘 마무리된 시점에서 추구하는 직전으로 정성을 다하다보니 업계에서 꼼꼼하게 설계를 잘한다는 입소문이었다.

김성수 대표이사는 "건축설계란 토론하면서 하자도 없고 미적 감각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세종 21은 모든 임직원이 구조, 기능, 미적인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단순한 설계자가 아닌 말주자가 만족하는 작품을 남기는 건축설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기술개발 투자확대... 고속성장 발판 마련 '건축물 배란다 화재의 중간확산 방지구조' 등 특허 자랑

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보다 앞선 건축을 선보여 고객의 다양한 삶의 가치가 부여되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사립과 자연을 위한 새롭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구축'을 경영이념으로 건축설계,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사업관리, 건축물유지관리업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건축용 방범창의 구조, 건축물 배란다 화재의 중간확산 방지구조, 건

무지원부 등이 있다.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송유석 대표는 건축설계분야에서 40여년의 경력을 보유한 장인이다. 송 대표는 연세대 건축학과 졸업 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건축부에 입사한 뒤 고속도로, 항만, 댐, 철도, 도시계획 등 다수의 설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1990년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했으며,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며 성장기도를 달리고 있다.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2014년 매출 35억 6천만원을 달성했으며, 기

으로 확대했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대동 테크노타운 13, 20, 21차의 신축공사 설계·감리를 담당했고, 코요동 역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감리, 부산시하우체국 건립공사 설계, 구로구 기적종합지원센터 설계, KOSPO 영남파워 종합사무실 신축공사 설계, 서울남부지방법원 별관 증축 설계, 중부권광역철도센터 건립공사 설계 등을 수행한 바 있다.